

‘고수익·100% 환불 보장’ 절대 믿지마세요

유사투자자문업체 피해 사례 매년 증가 주의 필요

피해자 절반이 중도해지 못하는 불리한 계약 조건

광주 동구에 사는 허모씨는 지난 2012년 3월 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SMS 광고를 보고 투자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회원가입비, 정보이용료 등으로 180만 원을 내면 최소 월 8%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1년3개월 기한으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계속 투자손실을 보게되자 허씨는 그해 12월 계약을 맺은 지 9개월 만에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다. 이 업체는 계약서상 약관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환불을 계속 거절

하고 있다. 최근 허 씨처럼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유사투자자문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접수한 결과, 2011년 22건, 2012년 30건, 2013년 7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 내용별로 살펴보면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들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를 거절한 경우(49.6%)가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거절(32.8%)과 수익률 미달 시 입회금 반환약정 불이행(11.2%) 등이 뒤따랐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소비자가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유사투자자문 업체 중 입회비와 중도해지 조건을 제시한 115개 업체의 계약조건을 분석한 결과 47개(40.9%) 업체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환불 불가(30.5%), 부당한 의무사용 기간(28.8%), 과도한 위약금(15.2%), 자료 이용 시 과도한 부가 수수료(11.9%), 장기할인 계약 유도 후 중도해지 시 부당한 할인혜택 환수(11.9%)

등을 계약조건으로 내걸고 있었다. 특히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과도한 투자 수익률을 표방하거나 단기간 투자로 거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 해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업자의 중도해지 거절행위와 과장된 수익률 광고 등을 통한 유료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도 환불 기준을 포함한 중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생생 농업정보 서비스’

지난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가 소비자들 앞에서 어디서든 손쉽게 농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aT 생생정보 서비스’를 시연해보고 있다. aT 생생정보는 지금까지 다양한 경로로 제공되던 정보를 고객지향적으로 시각화, 단순화해 간편 정보 형태로 개발됐다. KAMIS(유통정보), KATI(무역정보), FIS(식품통계정보) 등에 게재되는 정보 중 고객이 자주 찾는 실시간 정보 위주로 구성했다. <aT 제공>

금융감독원이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각종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에 대해 대대적인 검사에 착수한다. 금융원은 이달 31일까지 5개 TV 홈쇼핑의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검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원이 지난 2012년 TV홈쇼핑 등 보험판매 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홈쇼핑 불완전 판매율(0.57%)이 보험설계사 체납(0.28%)의 2배

TV홈쇼핑 보험상품 대대적 검사 착수

금융원, 소비자 오인 과장된 표현·사실과 다른 설명 등

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5개 홈쇼핑사 중 GS·현대·CJO쇼핑 등 3개사의 불완전 판매율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11%포인트, 0.15%포인트, 0.3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금융원은 TV홈쇼핑이 소비자를 오인

케 하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지,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지 등 홈쇼핑 방송을 통한 과장 광고와 불완전판매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일정한 조건과 제약이 있는데도 ‘원인에 관계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중복

보장’ 등 극단적·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다음 달부터 보험료 인상’ 등 허위 설명을 제시하는 행위 등도 점검 대상이 된다. 또 과도한 경쟁제공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보험판매방송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원은 이번 검사에서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해 위반·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네이버 지식쇼핑 등 5곳 판매·운영실태 비교해보니

가격비교 사이트 정확성 90% 웃돌아

주요 가격비교 사이트의 정보 정확성이 90%를 웃도는 등 사이트 운영 실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 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등 5개 가격비교 사이트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판매 사이트와의 정보 일치율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지난 7일 공개했다. 가격비교 사이트는 상품의 가격 정보를 비교해준다. 예를 들어 A사의 의류를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가격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면 판매 사이트들이 해당 의류를 얼마에 파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점검 결과 소비자 가격비교 사이트에 표시된 상품을 클릭했을 때 판매 사이트에서 같은 가격의 같은 상품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평균 98%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에누리닷컴(100%), 네이버 지식쇼핑(98.1%), 다음 쇼핑하우(97.5%), 비비(97.5%), 다나와(96.9%) 순이다. 모든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판매 사이트의 가격 정보를 100%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연결된 상품이 실제 구매가 가능한 경우는 93.1%다. 네이버 지식쇼핑(97.5%)이 제일 높고 다나와(94.4%), 비비(94.4%), 에누리닷컴(93.8%), 다음 쇼핑하우(85.2%)가 뒤를 이었다. 배송비의 경우 가격비교 사이트와 판매 사이트의 정보 일치율이 82.8%에 그쳤다. 다음 쇼핑하우가 85%로 가장 높고 네이버 지식쇼핑과 비비 각각 81.4%로 가장 낮았다. 가격이 추가되는 필수옵션 정보를 제대로 표시한 비율은 92.8%다. 품목별로는 스마트TV(75.6%), 노트북 컴퓨터(77.8%)의 정보 일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상품의 경우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표시된 상품과 같은 상품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96.7%, 연결된 상품이 실제 구매가 가능한 비율은 92%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공개가 가격비교 사이트들 간 경쟁을 유도해 정보의 정확성을 보다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내산은 파란색·수입산은 노란색

수산물 원산지 색으로 구분합니다

색상을 달리해 소비자들이 수산물 원산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가 수산물 원산지를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산, 원양산, 수입산의 색상을 달리한 원산지표시판을 제작해 본격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보여주는 표시판의 색상을 국산은 파란색, 원양산은 흰색, 수입산은 노란색으로 구분했다. 수품원은 전문가, 소비자, 판매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산물 판매형태 별로 일반 꽃이형, 걸이형, 너자 꽃이

형, 박스 집게형 등 8종류의 표준 도안을 개발·제작했다. 이 도안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노량진수산물시장에 시범 보급했다. 소비자와 판매자로부터 좋은 반응이 나왔다. 수품원은 우수 전통시장 등 8개 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에 이 도안을 확대 보급했다. 정동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은 “수품원에 게재된 색상형 표준 도안을 지자체, 수협, 상인회 등 표시판 자체 제작 보급이 필요한 곳은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kwangju.co.kr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결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p>동양철학원</p>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식당옆길) 사주,작명,개명,신수 궁합,택일,개인지도함</p> <p>☎062)224-7687</p>	<p>그린이용원</p> <p>북구 양산동 오리공영이뒤</p> <p>대표 성옥희 ☎010-3225-2735</p>	<p>아담카페식당</p> <p>동구천변로 405-10(천변지리산주요소에서클박스쪽) 오리로스, 오리불고기 삼겹살, 목살, 주물럭</p> <p>대표 김성훈 ☎062)224-0102</p>	<p>두걸음직업소개소</p> <p>북구 두암동 824-2번지(청사거리부근) 근로자 수시모집 (현장근로자, 여성근로자)</p> <p>대표 조창욱 ☎062)263-3862</p>		
<p>광남기업</p> <p>북구 두암동 849-26 두암시장입구 사시, 유리 조립식판넬</p> <p>대표 이경규 ☎062)263-0036</p>	<p>우먼로드</p> <p>중흥3동 286-36번지 (동부시장입구중흥3동사무소아래) 혼수전문, 이발, 커트, 전문매장</p> <p>☎062)524-8737</p>	<p>고전방</p> <p>동구 공동 34-4번지(중앙초등학교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062)224-4869</p>	<p>이가회관</p> <p>동구 금남로2가 충장동사무소뒷길 백반, 생태탕, 대구탕, 아구탕 낙지볶음, 각종생선조림</p> <p>대표 이복례 ☎062)224-1541</p>	<p>TV스토리</p> <p>신안동 481-38번지 소형에서대형까지최고의품질 검증없는가격특가판매50%세일 1년무상A/S</p> <p>☎010-5540-4568</p>	<p>우리웃빛고을</p> <p>동구 공동6-3번지 한복맞춤전문</p> <p>대표 신진아 ☎062)227-6730</p>
<p>커피홀릭</p> <p>동구 충장로 3가 11번지 이프유정문건너편2층 직접볶아신선커피</p> <p>대표 김현오 ☎062)229-0230</p>	<p>신신예술의집</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판매점</p> <p>대표 서태석 ☎062)222-1936</p>	<p>우리밀빵</p> <p>동구 금남지하상가 E동51호 (분수대빌터부근) 공정무역, 유기농커피, 사회적기업</p> <p>대표 박연옥 ☎062)222-1151</p>	<p>오리백년(두암직영점)</p> <p>북구 두암동 에덴빌건너편 오리한방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웃닭, 오리장어탕</p> <p>☎062)401-5253</p>	<p>미정</p> <p>동구 금남로 2가 (구)동구청뒤 (옛날구미항) 계절생선회,일식전문</p> <p>대표 김용범 ☎062)236-3177</p>	<p>샤브향광주문화전당점</p> <p>동구 광산동 79번지 2층 월남쌈구이 샤브샤브 베트남쌀국수 전문점</p> <p>☎062)229-0963</p>
<p>광주화랑</p> <p>궁동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제작판매</p> <p>대표 박종환 ☎062)232-4784</p>	<p>박당화랑</p> <p>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서양화 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환승 ☎062)222-6866</p>	<p>석당화랑</p>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062)222-3118</p>	<p>다나베움므</p> <p>동구 남동 169-4 (충장로1가입구민속촌옆) 호남최고 맞춤정장 결혼예복전문</p> <p>대표 김도경 ☎062)224-4262</p>	<p>호선갤러리</p> <p>동구 예술의거리10번지 미술품전시및대관</p> <p>대표 부영진 ☎010-5680-1188</p>	<p>세정아울렛무크(상설점)</p> <p>서구 치평동 1326 세정아울렛 2층 258호 10~20% 추가할인(일부품목제외) 디자이너 및 제품품질향상, 사은품증정</p> <p>☎062)370-9258</p>